■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부활 제목 : 예수 부활 내 부활 성경: 요한복음 11장 21-27절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11:21-27)

오늘은 부활절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생일은 두 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번에 익숙하다. 구정과 신정.)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 또한 부활의 종교.(거듭남은 영생에 대한 다시 태어남을 강조, 부활은 육체의 다시 태어남을 강조. 그러나 이 두가지는 따로 따로가 아니다.) 대단히 독특하다. 또한 가장 핵심적

이고 혁신적인 생각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나누신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고 신앙고백하고 있다. 마르다는 이미 여러 가지 중요하고 핵심적인 믿음을 이미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으며,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도 믿었다.
그러나 자기 오빠 나사로가 오늘 부활할 것을 알거나 믿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제 오빠가 죽었으니,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 여러 가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둘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
셋째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믿음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생명 그 자체시니 당연히 부활하실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시니 죽음을 이겨내시고 살아나실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생명 그 자체이시니 죽으셔도 잠자듯이 살아나신다.
둘째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명제이다.
셋째는 두 번째 명제를 재차 확인하는 명제로, 특히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려는 명제이다. 지금 현재 몸이 살아있는 때에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하게 영생, 즉 부활을 지금 현재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은 거룩한 몸이라는 뜻이다.
기독교는 영혼만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몸도 거룩하게 여긴다. 진실한 기독교인은 몸을 거룩하게 여긴다. 이것이 부활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에도 구체적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생명과 영생. 생명이란 온 세계 위에 편만한 것이다. 태양이 있는 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생명이다. 이 생명은 식물과 동물들 안에 있는 생리현상을 뜻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교하게 반복된다. 지구 환경의 변화로 어떤 종류는 멸종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종들이 계속해서 창조되고 생식을 통해서 그 종을 보전한다.

그러나 이런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 한다. 영생도 생명이긴 하지만, 생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마치 3차원과 4차원이 다르듯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생명을 계속해서 늘려가면 영생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그러면 지겨워서 죽고 싶을 것이다.
태양이 50억년쯤 타고 있고, 앞으로 한 50억년쯤 더 탈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그 위대한 태양도 그저 불타도록 만들어졌을 뿐이다. 마치 컴퓨터가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듯이 태양도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움직이지만 결코 생명은 아니다.
그러나 하찮은 단세포 생물일지라도 생명은 생식을 하고 DNA를 지니고 있다.
물질 하나 하나도 얼마나 신비스러운가? 생명의 신비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하물며 영생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며 생명을 하찮게 여기거나 돌맹이 하나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면서 영생을 선택하지 않는 인생을 돌처럼 하찮게 여기신다.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눅3:8)

영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온 세상에 유일하게 사람들에게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왜냐면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허무한 일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생이 수여받은 영생인 줄 모르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착각에 빠져 죄를 짓고 말았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영생을 수여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다.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영생은 죽은 영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게 된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이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히느냐 할지 모른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차원이 달라서다. 3차원에서는 4차원을 믿음으로만 경험한다.(물론 가끔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릴 기적이라고 하며, 기적이 많기를 기대한다.)

3차원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4차원은 존재하며 3차원에서는 물리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나타나더라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차원에서도 4차원을 끌어 당길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4차원적 생명인 영생이 죽어서 잠자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영생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4차원적인 흔적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 믿음, 비전, 말(4차원의 영성)이라고 일컫는다.(이것들은 결코 물리적으로 측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치 눈먼 장님이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4차원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부활에 참여합시다.
믿음으로 영생에 참여 합시다. 영생이 있는 자는 생명을 돌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돌보게 된다.
남겨진 이 세상의 삶에 긍정적이고 복된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3차원적인 삶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신다.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부활의 문이다. 우리는 죽는 순간 홀연히 변화 되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부활 제목: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58절

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15:42-58)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은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몸이고 영의 몸은 형체도 없고 먹고 마시지도 않는 귀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영의 몸도 몸이며, 단지 4차원의 몸이다.

4차원은 3차원을 포함하기도 하며, 초월하기도 한다.

부활해야 하는 이유는?

육의 몸이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육의 몸이 소멸되어야 하는가? 그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이다.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다.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 - 아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 예수님의 형상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재림하시는 그 날에 갑자기 변화 하리라.

무덤에서 잠을 잔다; 문학적 표현으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임.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

리도 변화되리라

우선 23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서 주를 맞이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믿는 도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바로 휴거하면서 부활체가 되리라고 믿었다.

-죽은 자들이 ; 해석의 두가지 가능성.

1. 예수를 믿다가 죽어 무덤에 있는 자들
2. 재림의 순간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부활체가 아닌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은 억지스럽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다가 죽는 순간 부활체로 변화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유에든지 아직 부활체가 되지는 못하고 아직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기계적이거나, 교리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교리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 교리는 거짓이 아니라 돕기 위한 설명이라는 점.

'교리를 오용하지 말자.'

-결코 누구는 죽은 즉시 부활하고, 누구는 무덤에서 재림시에 부활한다고 결정하지 말자.

-다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충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나?)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좀비가 되나?)

참고로

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다.

-아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세례까지는 받지 못해서 혹시라도 부활하지 못하게 될 까봐 그 후손들이 그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행하지 않으나, 부활신앙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 그 후손들이 그 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 여겨지고, 이는 교리가 아닌 간절한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 효능에 대해서도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교리화 한다면 사람들은 이 교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악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15:42-58)

부활신앙은 죽는 다음에 효과를 보느냐?

효과가 그리 멀지는 않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된다.

왜냐면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의 주를 부끄러운 상태에서 보기 원하는가?

-아무도 사랑하는 자 앞에 누추하게 나타나길 원하는 자가 없다.

-영광의 주를 감격으로 맞을 준비를 오늘부터 하자.